



소식지 2호 □

2023 □ 6 □ 15 □ □ □ □ □

친애하는 수녀님들, 초기 양성자, 스승예수의 벗 그리고 바오로가족 협력자와 바오로가족 회원 여러분...

며칠 동안 우리가 함께 지낸 총회 여정 두 번째 단계를 기쁜 마음으로 나눕니다.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우리는 5개 대륙에 퍼져 있는 수도회의 보고를 들으면서 현실을 방문하는 가상 여행을 했습니다. 넓은 아프리카 (부르키나 화소, 콩고 민주공화국, 콩고 공화국) 광대한 아시아(필리핀, 타이완, 홍콩 / 한국, 일본, 인도) 유망한 오세아니아(호주) 어려움이 많은 유럽(이탈리아, 바티칸,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체코) 두 아메리카 대륙 (멕시코, 칠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브라질, 아일랜드/미국, 캐나다)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인적, 영적, 경제적인 자원... 이 많은 조각들이 한 몸을 이루는 친교 안에서 하나의 모자이크를 이루는 것으로 드러난 위대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여행은 가상현실로 끝나지 않고, 이 시노드적 회중인 수도회 총회의 모든 지역구를 대표하는 수녀님들 사이에서 서로를 깊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삶과 사명을 수행하면서 폭풍과 파도를 건너가지만, 배 안에는 부활하신 스승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가라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함께 배가 육지에 닿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오대륙에 있는 우리 수도회의 부르심과 사명의 역사는 빛과

□
□ □ □ □ »,.



다양한 언어별로 구성된 그룹 또는 모두가
함께 하는 총회 회의장에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졌고, 한 몸을 이루는
전체의 선을 위해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영감과 숙고한 내용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촉진자 수녀님의 스위스 시계와
같은 정확한 시간 분배 안에서 자유롭게 경청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활발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작업의 두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작업은 6월 13일 참회예절로 막을 내렸습니다. 백주년을 위해 준비한 자료에 따라 성당에서
이 예절을 거행하면서 서로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고, 용서하는 평화의 포용으로 화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희는 이 사십 년(백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신명기 8,2).

6월 14일부터 저희의 여정은 새로운 비추임의 단계로 계속됩니다... 다음 기회에 여러분에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저희에게 보내 주시는 메시지와 저희의 힘이 되어 주는 응원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자매들과 함께 애정 어린 인사를 전합니다.

홍보분과

마리아 데라 파스 가르보나리, 엠마누엘라 비비아노 수녀
Sr. Maria della Paz Carbonari e sr. M. Emanuela Viviano